

타이어 안전검사 서비스 및 설문조사 결과

우리협회에서는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고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업계와 협동으로 타이어 안전사용검사 및 서비스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년 7월 검사까지의 추이를 중심으로, 일본의 타이어 안전사용 실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일본 자동차 타이어 공업협회(Japan Automobile Tir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05년도 안전검사 결과 수치를 삽입하였다. 참고로, JATMA의 안전검사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이루어지며 검사대상에서도 화물차를 포함하지만, 본고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승용차 대상의 결과치 만을 발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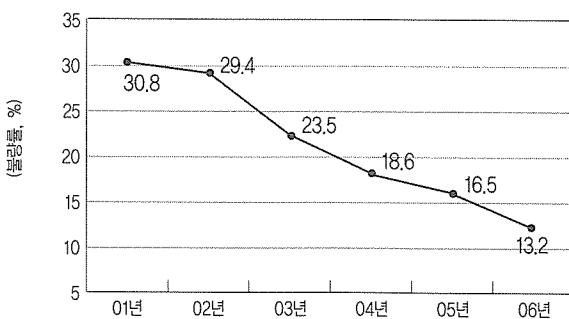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운전자의 타이어 안전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1. 타이어 안전검사

1. 타이어 정비불량률

06년 3~7월간(5회) 안전검사에서는 승용차 1,490대 중 197대가 정비불량률로 13.2%의 정비불량률을 보여 지난해 검사에서의 16.5% 대비 3.3%p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일본의 05년도 안전검사의 경우, 승용차 2,084대 중 262대가 정비불량으로 12.6%의 정비불량률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정비불량률 추이 (3~7월간, 5회 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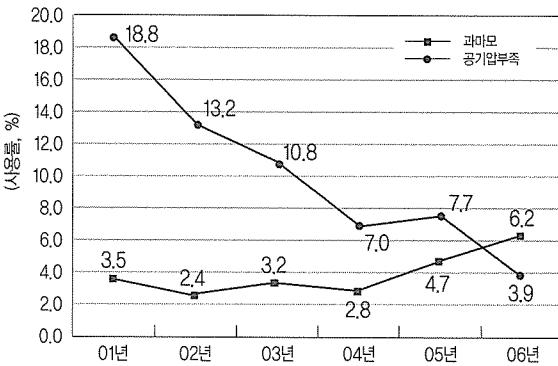


매년 3~7월간(5회)의 평균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의 정비불량률은 그라프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공기압 부족 및 과마모 타이어 사용률

06년 3~7월간(5회) 안전검사에서의 공기압부족 차량은 총 1,490대 중 58대로 전년동기 검사 결과 대비 3.8%p 감소한 3.9%를 기록했으며, 과마모 타이어 사용차량은 93대로 1.5%p 증가한 6.2%를 나타내었다. (일본의 05년도 검사의 경우, 공기압부족 차량은 총 2,084대의 7.3%인 153대였으며, 과마모 타이어 사용차량은 72대로 3.5%의 사용률을 보였다) 3~7월간(5회)의 평균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공기압부족 타이어의 사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면에 과마모 타이어 사용률은 05년에 이어 06년에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도별 공기압 부족 및 과마모 타이어 사용률 추이 (3~7월간, 5회 평균 기준)〉





타이어 안전사용에 있어 공기압관리 중요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나,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운전자들이 타이어교체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마모타이어 사용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II. 타이어 안전사용에 대한 관심도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일시 및 장소 : 1차 설문 – 06. 6. 23,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
2차 설문 – 06. 7. 21,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

응답자 : 승용차 운전자 215명 (1차 127명, 2차 88명)

[일반승용차 132명, 레저용 차량 65명, 승합차 15, 짚차 3명]
*전년 하반기(10, 11월) 설문조사 응답자 수 : 215명

2. 설문조사 결과

가. 타이어 교체

타이어 교체시기는 '3년미만' 136명 (63.3%), '3년이상 5년미만' 71명(33.0%), '5년 이상' 8명(3.7%)으로, 대부분 운전자 (96.3%)가 5년이내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하반기 설문의 경우 5년 이내교체는 96.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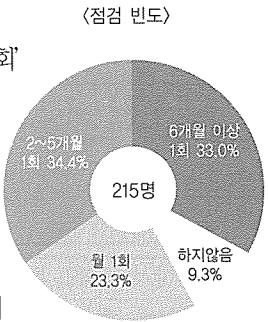
교체하기까지의 사용주행

거리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31명을 배제하고, '4만km 미만' 45명 (24.5%), '4만km~6만km' 101명(54.9%), '6만km 이상' 38명(20.6%)으로, 응답자 중 약 80%가 6만km 이내로 주행후 교체 (전년 하반기 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타이어 점검 관련

평소 타이어 점검의 빈도는 '월1회' 215명(100%), '점검이 50명(23.3%), '2~5개월 월에 1회' 74명(34.4%), '6개월 이상에 1회' 71명(33.0%), 그리고 '하지않음'이 20명(9.3%)로, 5개월 이내의 주기로 점검을 하는 운전자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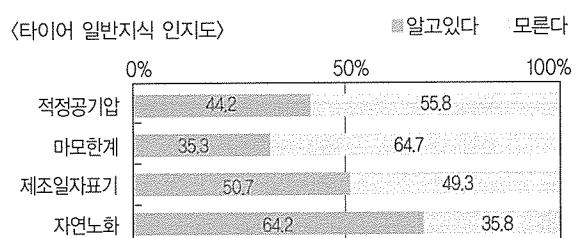


점검실시자는 '운전자본인'이 하는 경우가 61명(28.3%), '타이어 판매점'이 10명(4.7%), '카센터 및 정비업소'가 144명(67.0%) 이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토록 한 점검 항목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기압점검'이 174건(42.8%)으로 가장많았고, '타이어 흙깊이'가 105건(25.9%), '못박힘' 78 건(19.2%), 그 외 '기타 외상' 49건(12.1%)이었다.

다. 타이어 일반지식 인지도

타이어 적정공기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95명(44.2%)로 인지율은 전년하반기 대비 8.8%p 하락하였다.

타이어 사용한계(남은 흙깊이 1.6mm)를 알고 있는 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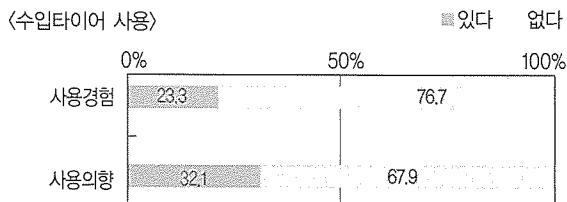


자는 76명(35.3%)로 전년하반기 대비 인지율은 14.0%p의 하락하였고, 제조(생산)일자가 타이어 옆면에 표기된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12명 (50.7%)로 전년 하반기 대비 인지율은 1.4%p 상승하였다. 한편,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이어가 자연노화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138명(64.2%)이었다.



라. 수입 타이어 사용

수입타이어의 사용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는 50명(23.3%)이었으며, 한편 69명(32.1%)의 운전자가 향후 수입타이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용경험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국산타이어 대비 수입타이어의 장점에 대한 질문에서 저소음, 내구성, 승차감 등 '품질' 이 59건(81.9%)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가격' 이 13건(18.1%)이었다.

마. 주행 중 타이어 문제 경험

타이어가 문제된 경험이 있었다는 운전자는 전체에서 75명(34.9%)이었으며, 이 중 '펑크' 가 44건(63.8%), '파열' 이 16건(23.2%), 접지면 고무분리(세퍼레이션)가 3건(4.3%), 기타 소음과 마모가 6건(8.7%)이었다.

3.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타이어 점검 실시에 대하여, 아예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약 10%를 포함하여 6개월이 되어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응답자가 약 4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공기압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공기압과 마모한계에 관한 질문에서는 55.8% 응답자(전년하반기 47.0% 대비 8.8%p 상승)가 본인타이어의 적정공기압을 알지 못하고, 64.7% (전년 하반기 50.7% 대비 14.0%p 상승)는 타이어 사용한계(남은 흙깊이 1.6mm)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공기압과 마모한계

및 마모한계표시에 대한 홍보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타이어를 사용해보았거나(23.3%) 사용할 의향이 있다(32.1%)는 응답자 중 국산타이어에 대한 수입타이어의 장점은 대부분(81.9%)이 품질이라고 대답했으며 그 외 가격적인 요소(18.1%)를 꼽았는데, 해외 유수 잡지 및 전문 기관 테스트에서 국내 승용차용 타이어의 품질의 우수함이 입증된 상황에서 수입타이어가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